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뉴욕 제조활동 예상보다 낮게 위축
- Bloomberg: Mester 연준 총재, "연준, 결정 사항과 정책 더 명확하게 설명해야"
- Bloomberg: 연준의 고금리 정책, 다른 선진국 중앙은행들과 괴리 벌어져
- WSJ: 바이든은 법인세 28%로... 공화당은 감세 추진
- Bloomberg: 경제학자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 가계에 과세 부담" 경고

[미국 금융]

- Bloomberg: 이번 주 글로벌 원자재 주요 차트

[뉴욕시]

- Bloomberg: 이번 주 뉴욕 화씨 98도까지... 북동부 기록적인 폭염

[전기차]

- Bloomberg: 2만5천 달러 전기차, 미국에 곧 등장

[중국 경제]

- Bloomberg: 중국, 주택 경기 침체와 산업 생산 둔화한다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N Business: 레저 차량 판매 상승세 ... 경제에 좋은 신호
- WSJ: 아디다스, 중국 고위 임원 리베이트 의혹 조사 착수
- CNBC: 애플 공급업체 TDK, 고성능 고체 배터리 소재 개발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New York Manufacturing Shrinks Less Than Forecast as Prices Cool

뉴욕제조활동 예상보다 낮게 위축

- 뉴욕제조업체들이 받는 생산자 가격이 거의 1년 만에 가장 낮게 하락한 가운데 6월 미 뉴욕주제조활동이 예상보다 적게 위축됐다.
- 뉴욕 연준의 일반 비즈니스 여건 지수가 9.6% 상승해 마이너스 6을 기록했다. 제로보다 적은 경우는 위축을 말한다. 당초 예상치는 마이너스 10이었다.

- 뉴욕주 제조업체가 받는 가격 지수는 7포인트 하락한 7.1을 기록했으며 자재 물가지수는 올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 한편 향후 6개월간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전망은 15.6포인트 상승한 30.1로 지난 2022년 3월 이래 가장 높아 뉴욕주 생산업자들이 경제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다.
- 주문과 출하 전망도 상승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Mester Urges Fed to Explain Its Decisions, Policies More Clearly

Mester 연준 총재, "연준, 결정 사항과 정책 더 명확하게 설명해야"

- 오랫동안 연준에 관여했던 클리프랜드 연준 총재인 Loretta Mester가 퇴임을 앞두고 연준이 대중에게 의사소통을 더 명확하게 해 대중이 연준 정책 접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 연준의 예측이 벗어날 경우에 연준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보다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그는 연준이 서로 다른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해시키는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기대치를 관리하고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 그는 또한 연준의 정책 회의 이후 성명서가 지난 10년간 60% 내용이 줄어들었다면서 "물론 간결성은 좋으나 시장은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글자 숫자는 변경사항을 고려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Fed Diverges From Global Peers in New Era of Higher for Longer

연준의 고금리 정책, 다른 선진국 중앙은행들과 괴리 벌어져

-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이려는 연준의 조치는 이마 금리 인하를 시행하기 시작한 다른 선진국들과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 현재 연준의 메시지는 두 가지, 한가지는 당초 3월에 3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했지만 현재 단지 한 차례만 연준 관리들은 예상하고 있다. 둘째로 고금리 시대 도래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 반면에 캐나다는 지난주에 0.25% 금리를 인하했으며 유럽중앙은행도 곧 이어 0.25% 금리를 줄였다. 스위스 은행은 3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 이같은 괴리 현상 때문에 달리는 강세가 되고 선진국들과 특히 이머징 마켓의 외국 자본의 계속 이탈될 것이라는 점이다.
- 연준의 고금리 정책은 환율의 변동성 문제에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인플레이션 둔화 현상을 저해하는 리스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블룸버그 조사는 밝혔다.

Bloomberg 기사

WSJ: Corporate Tax Rate Spurs Political Fight With More Than \$1 Trillion at Stake

바이든은 법인세 28%로... 공화당은 감세 추진

- 미 법인세 현행 21%를 놓고 양당이 정반대의 세율 조정을 주장해 회사의 수입과 연방 정부 수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이 11월 선거에서 이기면 법인세은 최대 28%까지 상승할 수 있고, 공화당이 완승할 경우 15%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주에 법인세를 1퍼센트 줄인 20% 과세를 원한다고 밝혔다.
- 1퍼센트 포인트는 10년간 세수에서 1천3백억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양당 간의 격차는 1조달러 이상의 격차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들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Trump's Planned Tariffs Would Tax US Households, Economists Warn

경제학자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 가계에 과세 부담” 경고

- 트럼프는 공약과 관련해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해 수십억 달러의 정부 수입을 내어 추가 감세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그러나 주류 이코노미스트들은 이같은 조치가 오히려 미 가계의 세금을 더 부과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이에 따라 미 중산층이 1천7백불의 판매세를 내는 것과 같으며, 좌파 싱크탱크인 Center for American Progress는 10% 관세 때문에 식품비 90불 상승, 약값 90불, 자동차에 2백20불의 비용 상승 등을 비롯한 가구당 평균 1천5백불의 비용 부담이 생기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Bloomberg: Five Key Charts to Watch in Global Commodities This Week**
이번 주 글로벌 원자재 주요 차

- **[구리]** 5월에 최고 수준의 가격으로 반등한 구리 가격이 다시 회복되는 가운데 공급 문제와 단기적인 수요 약세 가운데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런던 금속 거래소의 구리 선물은 오늘 월요일 1.5% 하락했다.
- **[오일]** 미국 원유 수출 호황은 휴스턴의 원유 거래 기록을 깨는 데 일조했다. 휴스턴에서 거래되는 서부 텍사스 중질유 선물 계약은 6월 10일 기준으로 5월 일평균 거래량의 거의 5배를 기록했다. 오일가는 월요일 약간 상승 거래 중이다.
- **[배터리]** 전 세계에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새로운 생산 공장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어 2020년도에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경우가 심하다. 중국과 미국의 경우 공급을 늘리고 있다.

Bloomberg 기사

[뉴욕시]**Bloomberg: NYC to Reach 98F This Week as Record Heat Bakes the US Northeast****이번 주 뉴욕 화씨 98도까지... 북동부 기록적인 폭염**

- 미국 북동부 지역이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전력 수요 급증, 건강 위험 상승, 통근 어려움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상청에 따르면 맨해튼 센트럴 파크는 금요일까지 화씨 98도(섭씨 37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주 최악의 더위는 중서부에서 시작해 뉴욕 북부와 뉴잉글랜드를 거쳐 뉴욕과 워싱턴으로 내려갈 것이다.
- 블룸버그 라디오의 기상학자 Scott Kaplan는 “오늘부터 습도가 높아지고 내일부터는 큰 더위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전기차]**Bloomberg: When Will America Get Its \$25,000 Electric Car?**
2만5천 달러 전기차, 미국에 곧 등장

- 미국에서 전기차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중국의 BYD 시겔은 약 1만 달러, 유럽의 다치아 스프링은 2만 달러, 브라질 르노 쿼드 e-테크는 1만9천 달러, 한국의 기아 레이는 2만2천 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 미국에서 2만5천달러짜리 전기차는 아직 출시되지 않았지만, 곧 등장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의 평균 차량 가격은 약4만7천달러, 테슬라의 Model 3은 약 4만달러부터 시작한다.
-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면서 제조업체들은 실용적인 경제형 전기차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2만5천달러짜리 전기차는 업계의 새로운 목표로, 여러 모델이 1년 이내에 출시될 예정이다.
- 이 차들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102.5%의 과세가 부과될 예정인 중국산 수입차와 경쟁할 수 있을지는 주행거리와 기능의 다양성에 달려 있다.

Bloomberg 기사

[중국 경제]

Bloomberg: China Property Drag Is Getting Worse, Factory Output Disappoints

중국, 주택 경기 침체와 산업 생산 둔화한다

- 중국의 주택 경기 침체가 5월에 더욱 심해졌다. 동시에,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산업 생산이 예상보다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시장에 자금과 신용을 공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5월 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5.6% 증가했지만, 4월보다는 둔화되었으며 블룸버그 조사 예상치를 밑돌았다.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 더 많이 증가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의 소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올해 5%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비 수요를 강화하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정부 지출을 늘리고 중앙은행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며 신용 공급을 강화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CNN Business: RV sales are picking up. That's a good sign for the economy

레저 차량 판매 상승세 ... 경제에 좋은 신호

- 2016년부터 레저용 차량 대여 사업을 시작한 Nika Shneyder 대표는 올해 예약이 감소하고 여행 기간도 짧아졌다고 말한다. 그는 RV 여행 수요 감소가 사람들이 팬데믹 이후 다른 여행을 선호하는 것보다 차량 지출이 줄어든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로 올 여름에 7월과 8월에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 소매 판매 측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완만한 수요 개선을 보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지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점차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RV는 일반적으로 고가의 개인 및 가족용 품목으로, 가격대는 소형 트레일러의 경우 1만2천달러에서 1만5천달러, 럭셔리 제품은 25만 달러를 훨씬 넘는다.
- RV 업계를 주목하는 경제학자 Michael Hicks는 경제가 좋아지지 않으면 대형 럭셔리 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말하며, 이 산업이 금리 변화에 매우 민감해 경기 침체에 선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CNN Business 기사

WSJ: Adidas Probes Allegations of Corruption in China 아디다스, 중국 고위 임원 리베이트 의혹 조사 착수

- 아디다스는 중국 근무 고위 임원들이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는 아디다스가 중국 시장에서 브랜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 아디다스는 6월 7일 중국에서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서한을 받았으며, 현재 외부 법률 고문과 함께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중국 소셜 미디어에 유포된 편지에는 아디다스 경영진이 중국의 마케팅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개인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담겨 있으며, 편지 작성자는 자신을 중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아디다스 직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WSJ 기사

CNBC: Apple supplier TDK says battery breakthrough can deliver higher performance for wearable devices 애플 공급업체 TDK, 고성능 고체 배터리 소재 개발

- 일본 전자 부품 제조업체 TDK는 웨어러블 장치에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고체 배터리 소재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새로운 소재의 에너지 밀도는 리터당 1,000와트시(Wh/l)로, 기존 대량 생산 배터리보다 약 100배 더 높다.

- TDK는 이 기술이 무선 이어폰, 보청기, 스마트워치 등 인체 접촉 기기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또 TDK는 이 기술을 사용하여 기존의 코인 셀 배터리를 대체해 휴대용 장치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유럽연합의 배터리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CNBC 기사

"美 국채 금리 하락, 주택 구매자에 호재...증시도 고공행진"

10년물 국채 금리 이달 들어 0.5%p가량 하락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현상) 둔화에 따른 최근의 미 국채 금리 하락이 주식 투자자는 물론 주택 구매자들에게도 호재라는 평가가 나왔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시장금리의 벤치마크인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달 들어 약 0.5%포인트 하락, 14일 기준 4.212%로 떨어졌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지난 12일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3% 올라 4월(3.4%)보다 상승률이 낮아졌고, 시장에서는 연내 2차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무게를 뒀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